

‘국내 1호’ 광주시 정책들 ‘전국 모델’로 확산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AI당지기 등 주목

복지부 장관, 광주서 ‘통합돌봄’ 현장 점검

생활 밀착 정책 발굴...‘광주형 모델’ 정착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복지·의료·노동·안전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친 전국 최초 혁신적 정책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당지기’ 도입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야간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일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이는 유연 근무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수원시, 경북도,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 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

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아 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발전해 의료, 요양, 주거, 식사, 이동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 시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6일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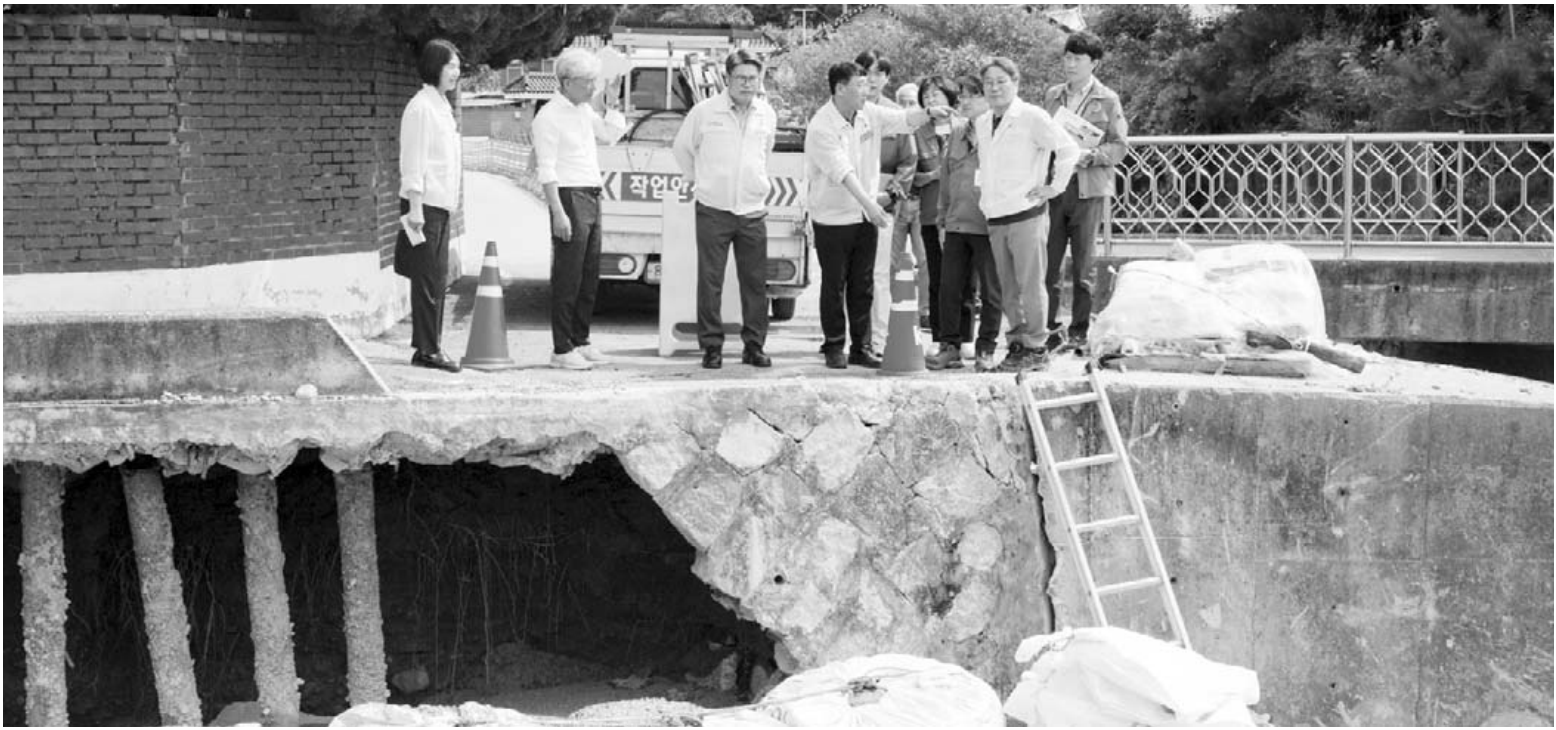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는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할 필수 의료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건강간식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는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밖에 ▲특새돌봄 시책인 순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보행 안전을 위한 ‘현수막 계시대’ 설치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새 출발 응원금’ 사업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비용 지원 사업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특별재난구역 선포 현장 점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오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집종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군·구 1/3은 ‘출산 불모지’

연간 분만 건수 10건 못미쳐

郡지역은 물론 市단위도 많아

분만병원 없어 원정출산 선택

전국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않는 ‘출산 불모지’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아기를 낳는 산모 자체가 적은 데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만7천484건(올해 4월 건강보

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보면 25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9곳(38.6%)에 달했다.

심평원은 2019년 진료 청구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분만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 전체 시·군·구 숫자(251곳)가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226곳,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시·구 포함 시 200곳)과 차이가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는 물론 시 단위에서도 분만이 10건 미만인 곳이 많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이다.

군 단위에서는 아예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분만이 10건 미만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은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37.1%, 36.7%로 작년과 비슷했다. 이는 출생 신고 때 기재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통계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백 단위로 반올림한 잠정 수치만 우선 공개된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은 영암군·울릉군 두 곳뿐이었다. 이들 지역의 2023년 출생아 수는 각각 30명, 28명으로 같은 해 분만 건수(10건 미만)보다 많았다.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이 10건보다 적다고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거주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취약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출생아 수 자체가 워낙 적은 만큼 모든 시·군·구에 분만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전남도, 팽창식 구멍조끼 보급 지원

52억 투입 어선 소유자 대상 5만여벌

전남도는 10일 “어선 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구조 가능성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팽창식 구멍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업 현장에서의 구멍조끼 착용률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사업 규모는 총 52억원으로 도내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5만여벌의 구멍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존 교체식 구멍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작업 중 착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팽창식 구멍조끼는 가볍고 부피가 작아 작업 중에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점으

로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가 지원하는 팽창식 구멍조끼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은 목도리형과 벨트형으로 구매 비용의 80%를 보조받아 어업인은 1벌당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은 “구멍조끼 착용 여부가 해양사고 시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구멍조끼 보급 사업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道, 상·하수도 질식사고 제로화 총력

내달까지 밀폐시설 관리 중점 대응

전남도는 지난 8일 상·하수도 시설 밀폐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공무원, 공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수장 및 하수

처리장의 지하구조물 등 밀폐공간 내 산소 결핍, 유해가스 질식 등 다양한 위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 추진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교육은 ▲작업장 유해 요인 관리 ▲작업장 주변 위험 경고 ▲작업

장 사전 확인 및 안전 장비 비치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할 안전수칙 위주로 구성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근로자 안전 환경 확보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 책임감을 고취시켰다.

전남도는 밀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9월30일까지를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대응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1) 임동5거리 8층 135평 은행감장가 6억1,600
급매가4억1,000(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2) 용자금(14억)만 안고 그냥 이전해가세요
산수동5거리 4층건물 대지150평 연건평380평
주차15대

3) 대인광장로타리 상업지 188평을 급매합니다
평당1200만원(조정됨)입니다

4) 운암자이(구주공)등5,000여세대
대로변코너 대지202평 5층622평
승강기1,주차11 급매45억

5) 드라이브루 마케팅용빌딩
남부권 관문, 아파트1만세대 생활권 6차선대로변
대지606평 지하1층 지상3층
승강기1, 에스컬레이터 각층, 주차92대 가능
급매90억(용자75억) 현금15억 인수 가능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